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10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이삭을 내민 무논의 벼 들처럼, 삶이 제아무리 험겨워도 본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여름의 한복판에 가을을 세워두신 주님, 이 입추 절기에 하나님의 질서에 눈을 뜬 철든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밀물과 썰물이 갈마들지만 바다는 언제라도 바다인 것처럼, 우리 삶이 편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은 늘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십니다. 세상의 휘황한 것에 눈길을 빼앗겨,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마른 밭에 물을 대는 농부처럼, 저희도 이 팍팍한 세상에 희망의 물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36:6-7
♠ 교 독 문	13. 시편 34편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윤석철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16. 목마른 자들아
성경봉독	I. 고전 13:4-7
	II. 잠12:10-17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아름다운 사람
	김재흥 목사
	II. 뿌리와 결실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498. 은혜 구한 내게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풍랑과 바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의 곤경을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다 함 께 :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빛이 되시니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단 열매에 탐닉하기보다는 삶의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해주시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에스겔 통독강좌(30)	신명기 강해(11)
기도: 윤주원 집사/박효선 권사(15)	기도 : 한선희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박인혁 선생 김재흥 목사	인도자 백승민 집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길	박범희	이순정	박옥순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이인웅	김중수	김애경	구명자	김명순

가난한 사람을 데려오라

당신이 싫어하는 어떤 사람을 생각해 보라. 그 남자나 그 여자의 존재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 사람 앞에 있는 당신 자신을 상상해 보라.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을 지켜보라. 상상하건대, 가난한 사람이나 장애인, 앞 못보는 이나 다리 저는 이 앞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 것이다.

이제 길거리나 골목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당신 집으로 초대한다면, 즉 당신 존재 안에 받아들인다면, 그 남자나 그 여자가 매력적이고 즐거운 친구가 되어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줄 수 없는 선물을 당신에게 줄 수 있음을 깨달으라. 그 남자나 그 여자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여 줄 것이고, 인간 본성을 드러내 줄 것이다. 이것은 성서의 계시만큼이나 소중한 계시이다. 성서를 다 안다고 해도 당신 자신을 모르고 로봇과 같은 삶을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사람이 보여 줄 계시는 모든 생물을 받아들일 만큼 당신의 마음을 넉넉한 공간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당신 자신을 바라보고 다음의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라.

“내가 이 상황을 책임져야 하는가? 아니면 이 상황이 나를 책임져야 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계시이다. 이어서 두 번째 계시가 따라 온다. 이 상황을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은, 지금은 아니지만 자신을 책임지는 것이다. 어떻게 이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과 같은 입장에 놓인다고 해도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 상황을 책임질 것이고, 더군다나 당신처럼 상황에 지배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부정적인 느낌은,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틀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계시이자, 중요한 계시이다. 진정으로 이것을 이해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당신 자신에 관한 이러한 계시들을 받아들이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다음의 계시에 귀 기울이라. 당신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저런 행동과 특성이 다른 사람에게 있지만, 그 남자나 그 여자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아는가? 그런데 당신이 그 남자나 그 여자는 자유롭고,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며, 그래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한, 당신은 부정적인 느낌을 계속 고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알면서 악한 일을 하겠는가? 악한 일을 하거나 악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양심과 감수성의 결핍을 드러내는 일종의 병이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를 지으실 수 없는 것처럼 죄를 지을 수 없다. 당신 앞에 있는 이 가난한 사람은 당신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처럼 고집 세고 심술궂은 사람이 아니라 장애인이고 앞 못보는 이이고 다리 저는 이일뿐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고, 확실하고 깊게 바라보라. 그러면 당신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친절과 연민으로 변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갑자기 당신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과 당신이 길거리나 골목으로 내몬 사람에 대한 공간이 생긴다.

이제 당신은 이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구호물자를 가지고 당신의 집으로 찾아왔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구호물자는 당신 마음을 연민으로 가득 차게 해주고, 당신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 줄 것이다. 당신은 전에 제지받곤 했던 그곳에서 이제는 아무도 피하지 않아도 되고(이런 사람은 당신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힘을 가졌고, 당신은 그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야 했다),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자유의 선물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을 보게 될 때, 마음속에 있는 연민의 느낌에다 당신의 은인인 이 사람에게 감사의 느낌이 어떻게 더해지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생소한 느낌이 들 것이다. 수영을 배운 사람이 물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장을 가져다주는 장애인, 앞 못보는 이, 다리 저는 이들과 어울리는 길을 찾고 싶은 욕구를 정말 느끼게 된다. 그들과 같이 있을 때마다 전에는 부정적인 느낌의 압박과 횡포를 느끼곤 했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끝없는 연민의 마음과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난한 이, 장애인, 앞 못보는 이, 다리 저는 이를 데려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도시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는 당신 자신을 볼 때 간신히 당신 자신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친절과 배려

우리는 단순한 미소가 지어내는 온갖 좋은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질고 인정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기억나게 하는 생생한 징표가 되고 있습니까?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선과 용서와 생생한 배려를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들이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져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의 눈망울, 여러분의 미소에서 친절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빛이자 친절입니다.

사려 깊음이야말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터득하기만 한다면, 더욱더 그리스도처럼 될 것입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냥했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헤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명이 아름다우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어디서나 선을 행하셨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헤아리고 그들을 예수에게로 데려가셨습니다.

(마더 테레사, 『즐거운 마음』 중에서)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옥식 방현복 이부방 윤정덕 구성실 한상익 정영선
 방문성 박혜경 김중수 이순정 구명자 백승민 박성수 김애경 조문규
 진정숙 김순복 전영웅 김 극 이정규 이인섭 박순희 김지윤 윤미경
 김지호 박홍엽 김성한 조영순 남현우 김은진 김재홍 최희영 오진훈
 노순옥 송동준 김진경 김홍기 염혜영

월정헌금:

윤주원 최윤선 하정석 이명희 이지훈 김명순 이동천 권미정 이호원
 서재홍 박현우 정진경 허광식 최윤희

감사헌금:

한완식 임정자 배부례 김홍기 한선희 이인섭 한인철 조윤숙 박옥식
 김순복 무명1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심	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레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월례회** : 예배 후 제1.3남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2. **수양회** : 잘 다녀왔습니다. 수양회에서 받은 영적인 기쁨을 일상 속에서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3. **봉사** : 11일 오전 11시 30분에 종묘 급식봉사가 실시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섬기는 이들의 손길이 아름답습니다.
4. **신앙실천** : 덜 먹고, 수수하게 입고, 조금 불편하게 살아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삶이 맑아지는 첫걸음입니다.

현화: 윤수진 (오빠 20주기)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